

누적외상병에 관한 연구

권영국

관동대학교 산업공학과

ABSTRACT

반복적인 일의 수행으로 인한 병인 누적외상병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누적외상병(Cumulative Trauma Disorders)이란 비교적 생소한 질환으로 손이나 어떤 신체부위를 반복적으로 오래 사용하였을 때 오는 병이다. 이 질환은 200년전 이탈리아 의사인 Benardino Ramazzini에 의해 분류되었으나 최근까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 병은 Tennis Elbow(테니스 팔꿈치) 또는 Triger Finger (방아쇠 손가락) 등으로 더 잘 알려져 왔다. 그리고 의학계에서는 Ganglions(수종)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80년대의 탁상컴퓨터의 보급으로 많은 사무실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어 많은 사무원들이 누적외상병(CTD)으로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하게 된다. 제안자 역시 이 병으로 손목수술을 받은 바 있는데 이 병은 잠복기가 몇년씩 되는 직업병이다. 이병의 특성상 압과 같이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이것을 느꼈을 때는 대부분 너무 늦어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누적외상병의 실체와 현재까지의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현재 한국에서의 이병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대상을 선정하여 설문조사와 실측조사를 함께 수행하고자 한다. 표본대상으로 육체노동으로 반복작업을 하는 (Blue-Color) 집단, 사무실에서 반복작업을 하는 (White-Color) 집단, 그리고 가정에서 반복작업을 하게 되는 주부집단등으로 나누어 실태조사를 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의 통계처리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누적외상병에 관한 실태조사와 의식구조까지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총체적이고 최신의 이론과 연구에 바탕을 둔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